

CHOI EUN HEE DANCE PERFORMANCE -Thunder-

최은희의 큰 춤판
-천등소리-

2003. 10. 29-30(오후8시)
울속도문화회관대극장

인사말

그 소리의 랫줄은
우리를 모두 신생아로 싱글거리게 하며

내 머리와 갈비뼈 속에서 우르릉거리다 말다 하는
내 천둥은
시작과 끝에 두려움이 없는 너와 같이
천하를 두루 흐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무덤 파는 퇴플이를 쫓고
이 냄새 나는 조직을 벗고
엉거주춤과 뜨뜻미지근
마음 없는 움직임에 일격을 가해

(「천둥을 기리는 노래」)

라고 천둥을 이야기 합니다.

작품 〈천둥소리〉는 김주영 선생의 장편소설 「천둥소리」를 모티브로 하여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8·15 해방에서 6·25 전쟁으로 이어지는 5년간을 시대적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미 한 세기 전의 역사가 되어버린 일이지만 지금도 지구의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싸움들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사라지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미 한 세기 전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50여년 전에 일어나 지금까지도 계속되어가고 있는 오늘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구나 그 오랜 세월 속에서 희생되어간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저 평범했던 나의 어머니, 아버지였고, 나의 형제이자 동무였으며, 그들이 가고 남은 자리를 그들을 대신하여 내가, 그리고 나의 지식들이 불러받은 거라 생각해 보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신길녀'라는 여인은 바로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천둥소리”는 ‘내 마음의 통곡의 소리’인 동시에 ‘끊임없이 변하고자하는 바람’에 대한 모객의 소리이며, 내 가슴을 흥동질 시켜주는 욕망의 소리이기도 하고, 불안한 듯 떨게만 느껴지지만 마침내 동굴을 울리는 물 한방울의 소리처럼 이번 공연이 관객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3. 10. 28

최 은 희



작품내용

프롤로그

그림자 드리운 검은 골짜기에는 안개가 나리고
낮게 떠있는 하늘에는 천둥의 울음이...

천둥 소리

울어라, 울어라
천둥아
날 대신 울어다오
내 차마 여기에 주저앉지 못하게
날 대신 울어다오
그리고 나는, 나는 보내다오.
울어라, 울어라, 천둥아
날 대신 더 크게 울어다오.

절망의 벼랑 끝에 다다라 더 이상 고통의 그늘에서 헤어날 수 없을 때,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끝간데없이 밀려가야 하는 인간의 숙명적 고통'임과 동시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를 단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 아비규환(阿鼻叫喚)을 연상시키는 전쟁과 외부적인 상황에 대한 정신적 가치의 혼란함이 숲 속 길을 헤집으며 도주하는 여인과 그를 뒤쫓는 남자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이름 없는 수초(水草)의 노래

바람에 후후 밀려
강변을 맴도는 이름 없는 수초처럼
어느새 눈물의 가장자리로 흘러들고
떨어지는 눈물을 매만지기 전에
또다시 떠밀려 떠밀려 가네
어디로, 어디로.....

붉고 푸른 만가(輓歌)

붉고 푸르러 아름다웠던 이 땅은
허리잡려 각자의 소용돌이로 가라앉고
어두운 새벽만이 관하니 울리는 도시에는
나즈막한 핏빛 비소리만
추적추적

바람 너머로

꿈만 같은 기억의 조각을
한 올 한 올 날려보내는 손 끝은
동그랗게 동그랗게
차마 웃을 짓네

에필로그

내 슬픔이 불어나 눈물이 되고
내 눈물이 불어나 강이 되더니
동실동실 넘어가네 기억따라 물결따라
동실동실 손 흔들며 넘어 넘어 강 넘어로



수난시대에서의 억척스러운 그녀의 삶은 오히려 생명을 향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몸부림이었다.
강을 건너가는 길녀의 모습은 죽음을 넘어선 차라리 강인한 생명의 신호로 승화된다.

안무 의도

조국의 해방과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 그리고 뒤이은 남북의 분단, 그리고 그녀를 스치고 간 생애기와의 같은 남자들... 그 무엇도, 그 어느 하나도 그녀 스스로가 원하고 결정지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남세에는 영웅이 나타나게 마련이라 하지만, 8·15에서 6·25로 이어지는 그 5년이란 시간 속의 여인 '신길녀'라는 인물은 차라리 강물에 떠밀려 다니는 수초에 가까웠을, 그저 평범한 여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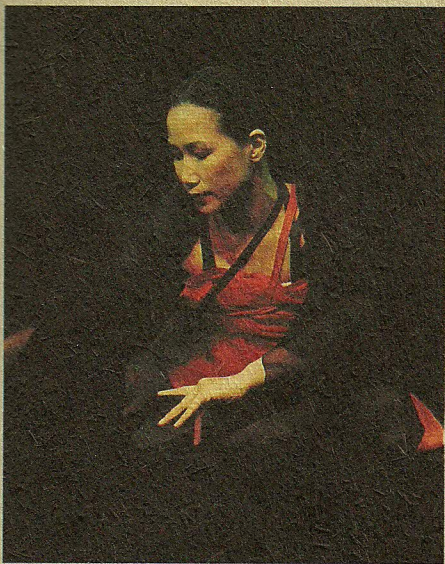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숙명과도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억척스러운 만음의 인내와 주도자와 같은 희생의 연속으로 끊임없이 살 곳을 찾아 앞으로 헤쳐나갔던 신길녀의 삶을 통해, 산재되어있는 일상의 수많은 비극을 겪어야 하는 오늘날의 인간들에게 경이로운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시키고자 한다.

새로운 한국무용의 언어의 재발견을 위하여...

김주영의 소설 <천둥소리>를 무용화한 이번 작품은 문학이 지니고 있는 역사사적 의미와 서사적 구조, 인물들의 갈등구조 및 성격을 움직임이라는 언어로 해석하여 표현하고, 또한 음악, 조명, 장치 등 복합적인 무대 매커니즘으로 시각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역동적인 '새로운 한국무용 언어의 발견' 가능성을 실험해 보고자 한다.

스텝

- 안 무 / 최은희 · 원 작 / 김주영 · 조안무 / 신은주 · 지도,훈련 / 하연화 · 무대장치 / 정진운
- 조 명 / 장훈석 · 의 상 / 마레 · 음 악 / 마린뮤직 · 무용대본 / 양호윤 · 무대감독 / 하지훈
- 진 행 / 정미숙 · 가 획 / 황정옥 · 사 진 / 이호형
- 출 연 / 최은희, 하연화, 신은주, 오은주, 손미란, 구영희, 김민정, 한종철, 조은정, 김정아, 정수임, 이은정, 최의욱, 김영진, 김민아, 김연경, 어혜정, 박수정
- 스텝 / 고윤장, 정유진, 김지경, 정주영, 박유리, 홍현녀, 허진희, 강경숙, 공지원, 김자연, 박진주, 이귀문, 윤화진



최 은 희

부산 한국창작춤의 첫발을 일군 대표적 춤꾼인 최은희씨는 1955년 인천 출생으로 그녀나이 6세에 무용에 입문 하였다. 이화여대와 동 교육 대학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였고, 국립국악원(1978)과 정신문화 연구원(80~82)에서 궁중무용과 무속무용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실기를 겸비하여 왔었다.

이기간 동안 김천흥, 한영숙, 김병섭, 강선영, 이매방, 김매자 선생님들께 사사했다. 부산으로 이주한 후 그녀는 부산과 경남의 무속과 민속춤에 많은 연구를 하였으며, 이러한 그녀의 경력은 하지제('82), 제웅맞이('86), 매듭풀이('88), 물맞이 굿('92), 영산회상불보살('93)등에서 나타나듯 한국의 토속적인 제의식들이 작품의 근간을 이루게 하였다.

최은희씨는 최초의 한국창작무용 단체인 창무회 창단단원으로 활동하여 뉘들임('82)을 안무하여 대한민국 무용제에서 대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부산시립무용단 안무장('83~84), 울산시립무용단 초대안무장('2000~2002)을 역임하여 부산과 지역의 창작무용계를 활성화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현재 경성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들을 양성하는 한편 춤패 배김새의 총감독으로서 전통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명제로 한국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활로를 모색하던중 199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로 지정 받았다.

최은희의 춤은 굳더더기가 없는 간결함을 특징으로 선의 미학에 찬탁하고 있는 듯 보인다.

현)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학과장

춤패 배김새 총감독

중요 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이수자

(사) 한국무용연구회 부이사장

(사) 부산무용협회이사

(사) 부산민주 항쟁기념 사업회 이사

<주요작품>

뉘들임, 제웅맞이, 매듭풀이, 현씨아미, 백방, 외출하다, 변신, 물맞이, 어두운 날들의 바람은 그치고, 여인등신불, 파문, 영산회상불보살, 하얀배, 네 개의 바다, 영혼의 번제, 태초의 공간에서, 어머니의 강, 우로보로스, 태화강은 흐른다 등 다수

신은주

- 춤패 배김새 상임안무자
- 제4회 부산무용제 '백의' 대상
- 제1회 현대 미학사 주최 우수 안무가상
- 제9회 무용예술상 연기상
- 주요 무형 문화재 제29호 태평무 이수자



하연화

- 춤패 배김새 대표
- 경성대학교 강사
- 제21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개막식 조안무
- 2002년 한·일 월드컵 울산 개막식 조안무
- 경남 무형문화재 제21호 진주 교방굿거리춤 전수자



구영희

- 서울 국립국악원 무용콩쿨 은상
- 전 서울 예술단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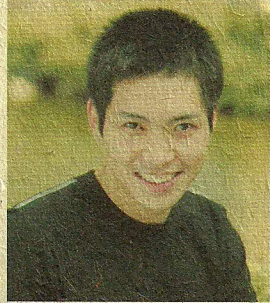
- 오은주
- 경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 부산예술대학 강사
- 제 1회 오은주의 춤 공연



- 손미란
- 춤패 배김새 단원
-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2002 아시안게임 부산문화행사 조안무
- 제10회 KBS 콩쿨 동상



- 김민경
- 경성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제14회 KBS부산무용콩쿠르 동상



- 한종철
- 전 대구시립무용단 단원
- 제20회 KBS 부산무용콩쿠르 대상



- 조은정
- 제 21회 KBS부산 무용콩쿨 동상



김경아



정수임



이은정



최의욱



장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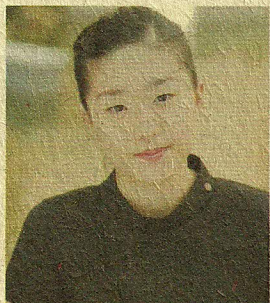
김민아



김연경



이혜정



박수정

· 주최
최은희 무용단

· 후원
부산광역시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 문의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Tel:051-620-4964)